

광주FC, 주말 '대어 사냥' 나선다

12일 전북현대 상대 원정경기 역대 전적 1승 5무 13패 열세 속 이순민-정호연 듀오 활약 기대 전남, 11일 서울이랜드 전 총력

광주FC가 전주에서 대어 사냥에 나선다. 광주가 12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2023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5일 FC서울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했던 광주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축구전용구장에 역대 최대 관중인 7357명이 입장하면서 뜨거웠던 분위기, 광주는 전반전 경기를 주도하면서 홈팬들의 응원에 응답했다.

전반 막판에는 엄지성이 원맨쇼를 펼치면서 골망까지 흔들었지만 공격 과정에서 산드로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무효골이 됐다. 불운에 운 엄지성은 후반 9분에 이어 10분 다시 한번 경고카드를 받으면서 퇴장까지 당했다.

결국 광주는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수적 열세로 0-2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광주는 이번 시즌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강호 서울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 주면서 박수를 받았다. 광주는 광주만의 색을 살려 전북의 위치에 도전한다.

전북은 올 시즌에도 '우승후보'로 꼽히는 강적 중의 강적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한 조규성을 비롯해 김진수, 송민규, 김민환, 백승호 등 월드컵 멤버들이 포진해있다. 아마노 준, 구스타보, 안드레 등 검증된 외국인 선수들까지 보유한 스타군단이다.

역대 전적에서 광주는 1승 5무 13패로 절대적인 열세지만, 공은 동글다. 전북에는 이동준과 홍정호의 부상 약재도 있다.

이순민-정호연 듀오에 시선이 쏠린다. 이순민은 안정적인 볼터치와 킥으로 포백 수비라인을 지키고,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의 살림꾼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프로 2년 차 정호연은 적극적인 압박과 투지로 11개의 획득, 3개의 차단을 기록하는 등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외국인 5인방도 든든하다.

주포 산드로와 함께 새로 팀에 합류한 토마스와 아사시가 좋은 호흡으로 공격에 무게감을 더했다. 에이스 엄지성의 부재가 아쉽지만 하승운과 김한

길, 정지훈 등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광주가 앞선 두 경기에서 보여준 강한 압박과 역동적인 공격으로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쟁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안방에서 0-5 대패를 당하며 연패에 빠진 전남드래곤즈는 서울 원정에 나선다.

전남은 11일 오후 1시 30분 목동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2023 3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안방에서 열린 FC안양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0-1패를 기록했고, 지난 5일 경남FC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무려 5실점을 하면서 0-5대패를 당했다. 시즌 초반 공-수에서 집중력 문제를 남긴 전남은 이번 원정에서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서울이랜드 역시 승리가 간절하다. 서울이랜드는 개막전에서 신생팀 충북청주에 2-3패를 당했고, 2라운드 안양 원정에서도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남은 장신공격수 시모비치와 미드필더 발디비아를 내세워 서울이랜드 공략에 나선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수범과 새로 영입한 U22 장신공격수도 이준호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12일 오후 4시 30분 전북현대를 상대로 대어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앞선 서울전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중원을 지킨 이순민(오른쪽)이 드리블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손흥민 이번 시즌 챔스리그 '아듀~'

아시아 선수 중 본선 최다 출전 기록했지만 토트넘 16강 탈락

AC밀란에 합계 0-1로 져

손흥민이 풀타임을 뽐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토트넘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UCL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AC밀란(이탈리아)과 0-0으로 비겼다.

앞서 원정 1차전에서 0-1로 패한 토트넘은 이로써 1, 2차전 합계 0-1로 패해 2018-2019시즌 이후 처음으로 복귀한 UCL 무대에서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 해리 케인,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공격진을 이뤘다.

이날로 손흥민은 UCL 본선 55경기에 출전, 과거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맨체스터 유나이

티드(잉글랜드)에서 뽐낸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54경기)를 넘어 '아시아 선수 UCL 본선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달성했다.

다만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5골 3도움, UCL에서 2골 등 공식전 9골 3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더하지는 못한 채 팀의 UCL 탈락을 지켜봐야 했다.

런던의 교통 체증으로 경기가 예정보다 10분 늦게 시작한 가운데, 전반에는 두 팀 모두 이렇다 할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데얀 콜루세브스키의 컷백을 받은 에메르송 로얄의 슈팅으로 공격의 표면을 열었으나 AC밀란 수비수의 몸에 맞고 굴절됐다.

전반 18분에는 AC밀란이 프리킥 상황에서 준비한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주니오르 메시아스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찬 오른쪽 발이 골대 왼쪽

으로 크게 빔나갔다.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날리면서 0의 균형은 이어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전반 23분 오른쪽으로 때린 과감한 중거리 슛은 골대로 향하지 않았고, 전반 35분 케인의 슛마저 상대 골키퍼 마이크 메냐에게 막혔다.

승리가 절실했던 토트넘은 후반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후반 8분에는 이번 페리시치를 페드로 포로로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경기는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후반 19분 케인의 슛이 골절대 뒤로 흘렀고, 세컨드 볼을 잡은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페널티 지역으로 돌파해 오른쪽 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메냐를 뚫지 못했다.

실상가상으로 토트넘은 후반 32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떠안았다.

토트넘은 후반 38분 콜루세브스키를 다빈손 산체스로 교체한 뒤 맞섰으나,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프리킥에 이은 케인의 헤딩을 메냐가 쳐내면서 끝내 득점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9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300 독일오픈 32강에서 세계 37위 군지 리코(일본)를 2-0(21-13 21-8)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1-0 보단 4-3...공격축구가 좋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회견... '아시안컵 우승·월드컵 4강 재현 목표'

"내가 공격수 출신이라서 공격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시안컵 우승과 월드컵 4강 재현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게 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9일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공격 축구'를 향한 강한 소신을 밝혔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된 클린스만 감독은 현역 시절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한국 축구에 접목할지를 묻는 말에 자신이 공격수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0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4-3으로 이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감독직은 '배움'의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빨리 배워나갈 것으로 자신한다. 내가 한국의 철학에 적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국이 내 철학에서 배워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역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중 가장 명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의 지도자 경력은 2016년 미국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뒤 사실상 끊겼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짧게 헤르타 베를린 감독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7년이나 공백기를 보냈다.

아시안컵 우승을 단기 목표,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을 중장기 목표로 내세운 그는 "인생은 늘 배움의 과정"이라면서 "결과"로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9일 경기도 파주NFC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 36분만에 압승 '16강행'

독일오픈 배드민턴

올해 초 동남아 3개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휩쓸었던 안세영(세계랭킹 2위·삼성생명)이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은 9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300 독일오픈 32강에서 세계 37위 군지 리코(일본)를 2-0(21-13 21-8)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점수 총합이 42-21 더블 스코어인 것에서 나타듯 경기 흐름은 일방적이었다.

안세영은 1, 2세트 모두 선취점을 가져간 뒤 각각 3연속, 5연속 득점으로 초반부터 치고 나갔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동점도 허용하지 않은 채 압

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경기 시간은 단 36분에 불과했다.

이제 10일 대만의 송쉬원과 8강 티켓을 두고 맞붙는다.

앞서 안세영은 1월 인도오픈-인도네시아오픈 우승,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으로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이 밖에도 독일오픈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 모두 16강에 올랐다.

여자단식에서 김가은이 함께 16강에 올랐고 남자복식 최솔규-김원호와 강민혁-서승재도 32강 전 상대를 꺾었다.

혼합복식 서승재-채유정, 김원호-정나은과 함께 여자복식 김소영-공희용, 백하나-이소희, 정나은-김혜정도 청신호를 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대외비
2관	스즈메의 문단속
3관	서치 2, 카운트
4관	대외비, 명몽이
5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콜 제인
6관	스즈메의 문단속, 코리도 3
9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7관	씨네커플 독톡톡, 6번 칸
8관	씨네커플 스즈메의 문단속,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바다 탐험대 옥토퍼닉 육지수호 대작전: 열대우림을 지켜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